www.syfund.co.kr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19. 10. 27. ~ 2020. 01. 26.

신영자산운용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펀드가 +8.22%의 수익률을 보였어요. 동 기간 +6.85%를 기록한 주식 시장과 비교했을 때 1.37%pt 높은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에는 미국과 중국이 기나긴 무역전쟁을 끝으로 1단계 합의를 맺었어요. 또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약 25%까지 차지했었던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딛고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올 연초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이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펀드는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시장 내에 전기전자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적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요인 중 하나예요. 다만, 기업들의 연말 배당 예상액이 펀드에 반영되었고 반도체와 연관된 IT 장비/소재 업종을 비롯해 시장 대비 더 비중을 싣고 있는 유통 업종에 있어서의 종목 선정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해 비교지수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답니다.

현재로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예요. 특히,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에 타격이 컸고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간의 교류 또한 줄어들면서 내수 경기 회복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사스(SARS)나 메르스(MERS) 사태 때를 돌이켜보면 단기적인 충격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경기의 방향성을 바꾸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 펀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건전한 재무구조와 수익가치를 지닌 기업, 혁신을 거듭하며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 등 기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예요. 기업의 수익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시장의 우려로 주가가 일시적인 하락을 보인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펀드는 지속해서 투자군에 속하는 기업들의 저평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투자 기회를 발굴해내고자 최선의 노력 중에 있답니다.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주니어경제박사 수익률 및 펀드 규모> 기준일 : 2020.01.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8.22%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19. 10. 27. ~ 2020. 01. 26.) +8.22%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6.85%인 것에 비하면 1.37%pt만큼 높습니다.

최근 5년 수익률	최근 3년 수익률	최근 1년 수익률
+35.32%	+12.48%	+0.15%
비교지수 : +15.63%	비교지수 : +7.72%	비교지수 : +3.06%
비교지수대비 : +19.69%pt	비교지수대비 : +4.76%pt	비교지수대비 : -2.91%pt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25,974 백만원 순자산 총액

+8.13%pt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순자산 총액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8.13%pt 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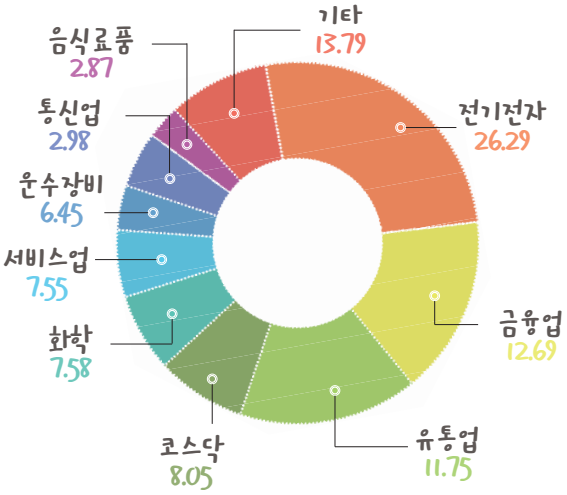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줘요.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업종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 종목>

(기준일 : 2020. 01. 26. 단위 : %)

1위	삼성전자	19.92	6위	KB금융	1.69
2위	LS	2.89	7위	현대모비스	1.67
3위	삼성물산	2.14	8위	POSCO	1.65
4위	CJ ENM	2.02	9위	신세계	1.64
5위	테크윙	1.71	10위	NHN	1.64

2020년 01월 26일 기준으로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종목은 지난번과 같이 삼성전자, LS와 같은 종목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답니다.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볼까요?>

SAMSUNG 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래미안 등), 상사(국제무역 및 자원개발), 패션(SSF샵 등), 리조트(에버랜드 등) 부문으로 크게 4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TechWing

테크윙

반도체 공정 내,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를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전문 회사예요.

SHINSEGAE

신세계

백화점(신세계),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신세계인터내셔날), 면세점, 부동산 및 여객터미널(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관광호텔업(신세계센트럴시티)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투자자산매매내역을 알아볼까요?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기준일 : 2020. 01. 26.

(단위 : 백만원, %)

매수	
수량	금액
53,619	1,848

매도	
수량	금액
81,405	1,769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연환산
7.24	28.73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2019.04.27 ~ 2019.07.26	2019.07.27 ~ 2019.10.26	2019.10.27 ~ 2020.01.26
13.80	11.74	7.24

신영주니어경제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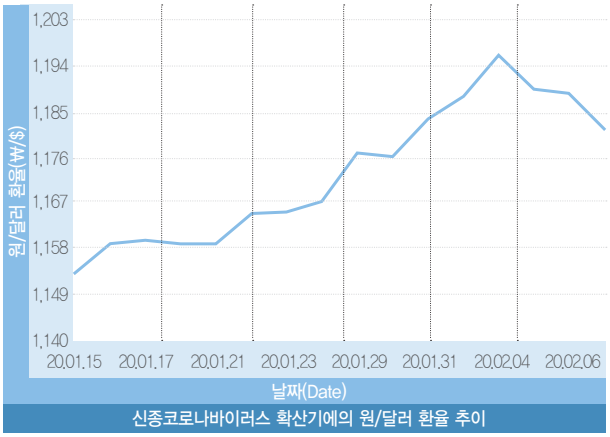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환율 이야기

'원/달러 환율, 1,170원대 훌쩍.. 신종 코로나 공포 때문?'

주경박 친구들, 요즈음 외출을 마음 놓고 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니 참 답답하죠?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요즘인데요. 사람들이 많은 곳을 기피하고 가급적 타인과의 잦은 접촉을 피하다 보니 내수 경제를 비롯하여 중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산업 및 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이로 인해 경제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더뎌질 것으로 보고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 또한 내려서 발표가 되고 있는 등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기사의 헤드라인과 같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원/달러 환율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갑자기 환율이 치솟는 걸까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기에의 원/달러 환율 추이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환율이 오른다는 개념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1달러의 가치가 1,000원(1,000원/1$)에서 2,000원(2,000원/1$)으로 올랐다고 가정 해볼게요. 즉, 1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로 메로나 정도 밖에 못 사먹다가 이제 콘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의 원화 대비 구매력이 올라간 것이죠. 이런 경우 달러의 가치가 올라 강해졌다고 해서 달러 강세,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졌다고 해서 원화 약세로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돌아와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요즘 달러의 가격은 왜 높아지는 걸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미국의 달러가 안전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는 데 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의 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달러에 대한 수요를 늘렸기 때문이죠. 그럼 왜 달러가 안전한 자산인걸까요?

먼저,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란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달러($), 유럽연합(EU)의 유로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달러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무역거래의 약 절반이 달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세계 국가들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액수의 총합으로 봤을 때 달러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화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 대비 꽤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달러는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화폐가 지닌 구매력이 다른 나라 화폐 대비 유지되기가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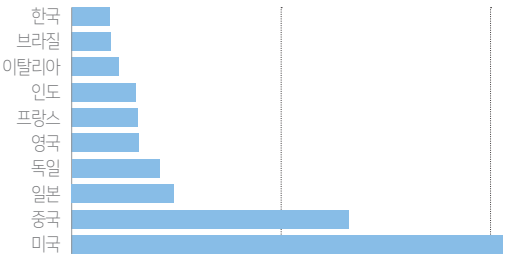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환율 이야기

'원/달러 환율, 1,170원대 훌쩍.. 신종 코로나 공포 때문?'

다음으로는 미국이 보유한 세계에서 제일가는 경제 규모와 높은 신용등급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발행되는 화폐든 그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의 경제가 튼튼한지, 믿을만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화폐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일어나기 매우 어렵겠지만, 달러라는 화폐도 미국이란 나라가 망한다면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게 되거든요.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전세계 GDP(국내총생산) 순위 1위를 차지하는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약 20조 5천억, 2위인 중국은 13조 6천억, 3위인 일본은 5조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요.(2018년, $ 기준) 우리나라가 약 1조 7천억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GDP는 약 12배로 어마어마한 규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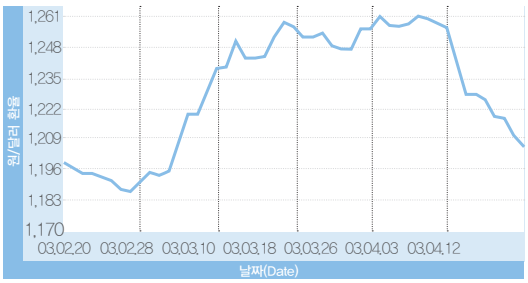
〈GDP(국내총생산) 상위 10개국 순위(2018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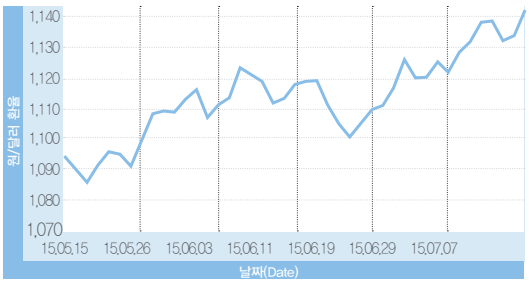
[출처 : 세계은행]

또한, 미국은 계속해서 최고 등급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2011년에 미국이 재정적으로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의 적자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이 것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요 평가사 중 한 곳이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를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고려하지 않을만큼의 여파로 이어지진 않았고 지금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되었을 때마다 달러 가치는 상승할 확률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 사스(SARS)와 메르스(MERS) 등 신종 전염병이 돌 때 당시와 비교해봐도 유의미한 달러 가치의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내 위기감 조성(예. 전염병)이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 금융 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되었던 일련의 사례들을 참고 해봤을 때 미래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니어경제박사 친구들, 과거 금융 위기와 같이 시장 내에 공포감이 조성되었을 때마다 달러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 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스 확산기에의 원/달러 환율 추이]



[메르스 확산기에의 원/달러 환율 추이]

그럼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손을 자주 씻어 바이러스를 잘 예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다음 경제열전 때 만나요!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투자신탁(주식)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8.22%로 비교지수 수익률 +6.85% 대비 1.37%pt 상회하였습니다.(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X 90% + CD91 X 10%) 이는 연말 예상 배당이 반영되었고 펀드가 시장 대비 높은 비중으로 편입한 유통, IT장비/소재 등 업종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 대비 낮은 비중으로 보유한 의약품,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업종의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하며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용경과>

주식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 소식 및 코스피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말 들어 미국 외 중국과 유럽의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도 둔화되며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무역협상 합의 소식이 전해지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1월 들어 월 초 양호한 삼성전자의 실적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월 중반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며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반도체, IT 하드웨어, 건강관리 업종, 구조조정 및 소비심리 개선 기대감으로 유통 업종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약화로 금융, 건설, 기계, 철강 등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동 펀드는 KOSPI의 상승에도 주가 소외로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대형 우량주와 향후 2~3년 사이에 기업가치 상승이 진행될 업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2019년 연말의 상승흐름이 지속되며 위험자산의 선호가 확산되어 가는 상황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 및 확산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되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글로벌 증시는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 역시 중소형주의 낙폭이 대형주 대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연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려 요인은 있으나 한국 주식시장은 배당수익률, 순자산가치 등 고려 시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과 중국의 경기 지표 반등 및 한국의 수출금액과 상장기업의 실적 개선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나 과거 감염병의 공포가 경기의 방향성을 바꾼 경우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 시 점차 경기와 증시는 상승 추세를 재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업종 내 대표 우량주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일부 대형주로의 쏠림에 저평가가 심화된 경기민감 업종 및 실적 개선주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이연된 투자가 진행될 전력 및 조선 등 산업재, 중국 및 글로벌로 수출이 가능한 소비재,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제약 등 업종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더욱 더 기업 본연의 자체적인 역량에 집중하여 건전한 재무구조와 수익가치를 지닌 기업을 바탕으로 혁신, 지배력 확대 등 경쟁력을 높여가는 기업을 찾는 과정을 지속하여 펀드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